

# BAZZAAR

Harper's

# ART

APRIL 2015





**두**바이도, 아부다비도 아닌 아랍에미리트연방의 소도시 샤르자의 첫 풍경은 기묘했다. 도시 전체가 공사 중인 느낌 때문일 것이다. 전통 모스크, 신축 중인 모스크, 법으로 정해진 듯 베이지색만 변주한 건물들, 허물어진 건물, 주차장으로 쓰는 공터, 전통 양식의 거대한 쇼핑몰, 난데없는 대관람차와 놀이공원, 사막 한가운데 빼죽 솟은 고층 건물, 짙으로 지붕을 올린 골목 안 작은 집들까지, 과거와 현재, 전통과 신식, 개발과 복원의 어지러운 모티프를 콜라주해놓은 도시 같다. 마치 한국의 1970~80년대를 연상시키듯 맹렬히 개발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 낯선 도시가 그러나, 마냥 숨가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샤르자를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평온한 예술의 기운 탓이 크다. 옛 도시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복원하는 헤리티지 구역, 두바이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잘 정돈된 넓은 아트 뮤지엄, 서체를 예술로 승화시킨 캘리그래피 뮤지엄, 마을마다 위치한 다양한 극장 등등. 물론 평생 외본 적 없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이 도시를 찾게 된 이유가 바로 샤르자 비엔날레이기 때문일 테지만 말이다. 우연히 만난 베이징의 내셔널 뮤지엄 디렉터 장칭(Zhang Qing)은 “카펫 위에 펼쳐진 예술도시”라는 별명을 즉석에서 붙여주었다. 샤르자는 ‘오일 머니’를 무기로 예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랍 도시 중 하나이지만, 다소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9년째 아트 두바이가 열리고 있는 두바이에서는 세계 유수의 갤러리들이 연착륙하면서 아티스트, 컬렉터들이 출몰하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아부다비는 최근 프랭크 게리가 디자인한 구겐하임이나 루브르의 아랍 근거로서 예술가들의 환심을 사고 있다. (양혜규 작가도 최근 구겐하임에 ‘더블스 앤 커플스’라는 작품을 맡기로 결정했다.) 반면 샤르자는 이들에 비해 훨씬 독자적인 예술문화를 가꾸어나가고 있다. 아트 두바이가 별 7개짜리 호텔인 버즈 알 아랍(Burg al Arab) 바로 옆 마즈라 주메이라 호텔에서 열리는 반면, 샤르자 비엔날레는 헤리티지 구역에서 출발한다. 이곳에서 열린 오프닝에는 머리에 시프라를 쓰고 칸두라를 걸친 남자들이 물걸처럼 밀려들며 진풍경을 연출했지만, 다른 두 도시의 예술적 야심에 비하면 샤르자는 화려할 것도, 대담할 것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바로 샤르자만의 예술 문화이자 샤르자 비엔날레의 특징이다.

줄리 메레투의 'Invisible Sun', 2014~15



다미안 오르테가의 'Talking Wall',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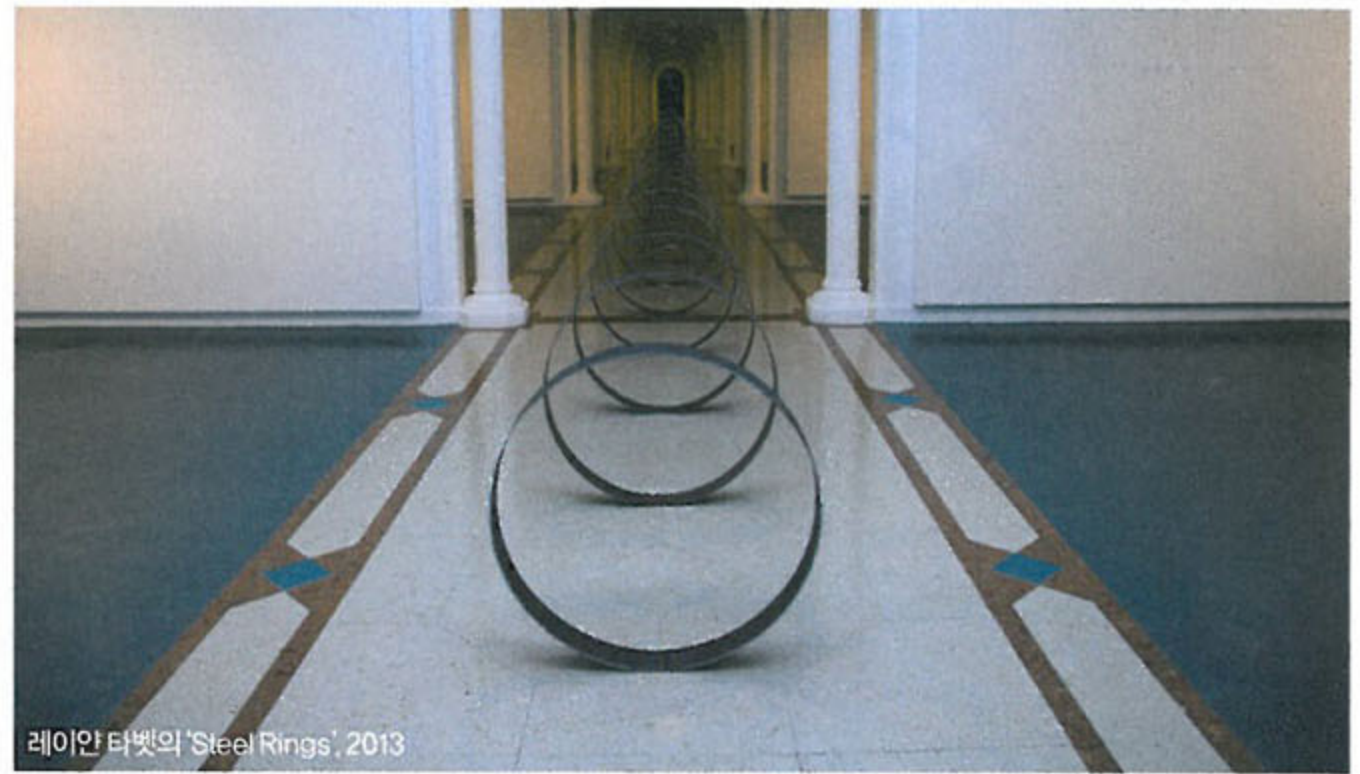
니키 초프라의 퍼포먼스 영상 'Use Like Water', 2015

# SHARJAH IS THE POSSIBLE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소도시 샤르자는 예술로 과거를 복원하고, 현재를 투영하며, 가능성을 모색한다. 그 가능성은 아랍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으로 확장된다. 오는 6월 5일까지 열리는 샤르자 비엔날레에서 발견한 몇 가지 담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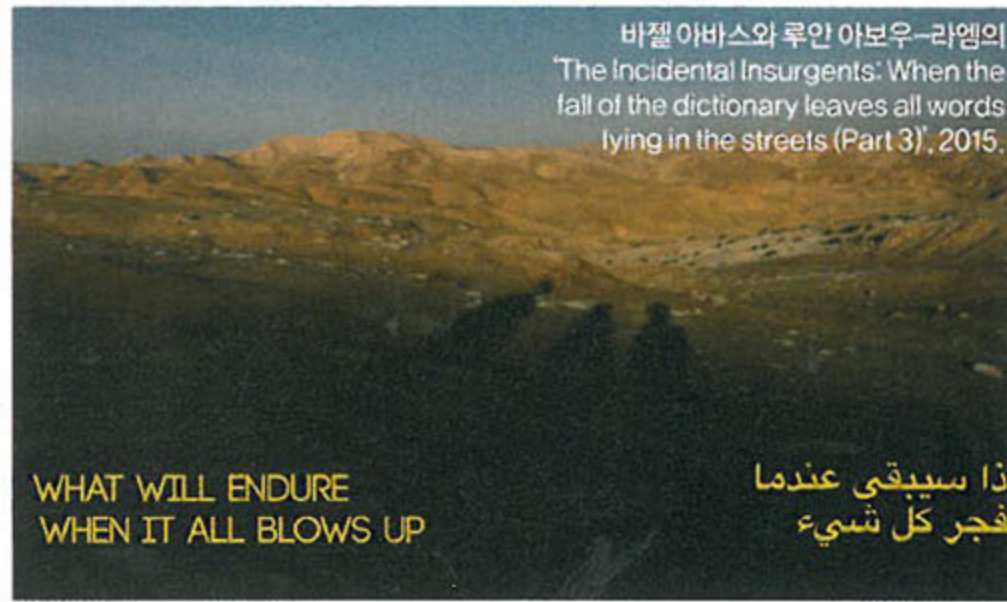
샤르자 아트 뮤지엄에서 선보여진 작고 작가 정창섭의 단색화



레이안 타벳의 'Steel Rings', 2013



에두아르두 나바로의 공공 예술 'XYZ' 2015



비젤 아바스와 루인 아보우-라엘의  
The Incidental Insurgents: When the fall of the dictionary leaves all words lying in the streets (Part 3), 2015.

WHAT WILL ENDURE  
WHEN IT ALL BLOWS UP

إذا سبقني عندما  
تفجر كل شيء



2012년 양현미술상 수상자인  
아브라함 크루즈비예가의  
'Reconstrucion2: Here We Stand', 2015

머물며 '장소특정적인' 작품을 고민했다. 샤르자 비엔날레는 예술 관련자들은 물론 연구기관과 학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까지 적극 주선하며 도시의 크고 작은 '현재'를 피상적이지 않게 담아내도록 후원했는데, 참여 작가들은 이 과정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했다. 양혜규도 마찬가지였다. "도시계획학자, 고고학자 등에게 이 곳의 전통 건축에 대해 배운 적도 있어요. 다른 작가들과 토론하고, 워크숍 하고, 영화 보고, 퍼포먼스 보고, 프레젠테이션 듣고, 답사 가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샤르자의 상황이란 아랍권만이 가진 이국성이라는 말로도 해석된다. 샤르자의 풍경은 어쩔 수 없이 낯설다. 코란 경전이 울려 퍼지면 어딘가에서 쏟아져 나온 남자들이 서둘러 사원으로 들어갔고, 칸두라를 걸친 아랍 저널리스트들은 프레스 투어 도중에 한쪽에서 박스를 깔고 기도를 했다. 일견 신기하면서도 오랫동안 축적된 중동 문화에 대한 물이해와 최근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사나운 사건 위주의 정보 덕분인지 더욱 거리감이 느껴진다. (샤르자라는 곳에 간다는 말에 지인들 중 십중팔구는 이렇게 물었다. "거기는 괜찮아?") 중동의 참모습은 진실과 편견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유일하게 분명한 건 이 혼란스러운 양상이 작가들에게는 영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멕시코 작가 다미안 오르테가 선보인 'Talking Wall'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만든 비밀 통로에서 영감 받은 작품이다. 전통 건축에서 활용한 환기 시스템을 접목했고, 그 결과 정치적, 문화적 장벽은 자연스럽게 '환기'

가 된다. 정원 철학에 큰 영향을 받은 일본 아티스트 시노다 타로는 그의 전 생애에 걸친 연구를 기반으로 사막 정원 'Karesansui'를 만들었다. 브라질에서 온 신시아 마르셀은 중동의 개발 붐을 투영한 작품 'At the Risk of the Real'을 완성하기 위해 샤르자 전역의 모래를 모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남자들이 위에서 모래를 흩뿌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바이런 김은 샤르자의 하늘을 페인팅한 '스카이 블루 플래그'를 해변도로에 걸어두었고, 이는 재현과 추상의 개념을 통해 국기처럼 거대한 것이 바람에 흔들리고 사라지는 걸 상상하게 만들었다. 샤르자 아트 뮤지엄의 한 층은 통째로 레이안 타벳 작가의 'Steel Rings'에 내주었는데, 실제 송유관의 일부를 떼어 온 것이라 했다. 한편 리그리트 티라바니아는 아예 전시장의 중정에 부엌을 만들고는 현지 셰프를 고용, 현지의 장미와 허브로 만든 시원한 음료수를 나누어주는 프로젝트 혹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고고학자들과 협업한 마이클 주는 통통배로 5분 거리에 있는 포트 카리드 근처의 버려진 창고에서 과거 인류와 고고학적 패턴을 추적하기 위해 걸음이라는 일상적인 행위를 접목하도록 만든다.

특히 한국 작가들에게 중동은 조금 특별할지도 모르겠다. 양혜규의 말처럼 중동과 한국은 과거 꽤 가까운 산업적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감성적인 관계로는 소통되지 않았고, 그건 지금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보면, 한두 명의 친구들은 '중동에 간 아버지'를 두었고, 이들은 때가 되면 미제 과자와 학용품을 학교에 갖고 왔던 것 같다. 아티스트 그룹 '믹스'



파렐니사지이드의 'Break the Atom and Vegetal Life', 1962



신시아 마르셀의  
'At the Risk of the Real', 2015